

# 문화도시 수원

제 15 호



**작담**  
로컬문화직거래 장터, 수문장  
문화도시 수원의  
로컬문화콘텐츠를 빛다.

**머물수록**  
문화도시 수원 동행공간  
수원대학교-청년리더 양성학교

**전문가 칼럼**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  
수원형 공공미술이 나아가 할 방향

**문화도시 수원 9월 이모저모**  
2023 인문도시 시민축제  
로컬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문화도시 거점공간 / 문화도시 동행공간

수원의 로컬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 로컬문화직거래 장터, 수문장 문화도시 수원의 로컬문화콘텐츠를 빛다.



## 참석자

정현빈(로컬러 대표)  
유중식(소행성99 대표)  
김화영(스토리블록 대표)

수원문화재단은 예술가와 문화생산자들이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당연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문장'은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의 명칭으로, 지역 예술가와 문화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시장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생산물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은 '수문장'을 통해 예술가와 문화생산자들이 활동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콘텐츠의 발굴과 육성으로 수원만의 문화브랜드를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문장 로컬크리에이터 3인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빈** \_\_\_\_\_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컬러 대표입니다. 저희 로컬러(Locolor)는, 로컬(Local)에 컬러(Color)를 더하는 로컬콘텐츠 제작기업으로, 수원을 기반으로 수원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및 수원시 마스코트 수원이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제품, 영상, 매거진, 이모티콘 등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동 내 '로컬러플레이스'라는 이름의 로컬 굿즈샵을 운영 중이니,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김화영** \_\_\_\_\_ 청소년과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스토리블록입니다. 블록을 바탕으로 신라 금관이나 수원화성 같은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블록 키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중식** \_\_\_\_\_ 반갑습니다. 전통과 현재의 어울림을 색, 소재의 레이어드로 표현한 디자인 소품을 만드는 소행성99입니다. 주로 아크릴을 활용한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소재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면서 그에 맞는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문장'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건가요?

**유중식** \_\_\_\_\_ 2022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년마을상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로컬+메이커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레 수원에도 나와 같은, 수원에도 디자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수원 로컬상품들이 모여있어 판매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N스마트스토어인 '수문장'을 찾게되어 합류했습니다.

**정현빈** \_\_\_\_\_ 수원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수원 내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플라마켓 및 팝업 스토어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던 중 수문장 사업을 발견하게 되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_\_\_\_\_ 이년 전 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호감과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사업에 참여하시며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다짐이 궁금합니다.

**정현빈** \_\_\_\_\_ 수원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수원 로컬 씬(scene)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수원 로컬을 가장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이자 크리에이터지만, 이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나가 수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중식** \_\_\_\_\_ 수원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브랜드와 네트워크를 쌓고 싶었어요.

**김화영** \_\_\_\_\_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켓도 처음 나가보는 것이었고, 수문장이 일종의 플라마켓이라는 것은 3회 차 정도 참여하면서 겨우 깨달았어요. 아마도 운영진은 계속 알려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나가면서 브랜드를 발전 시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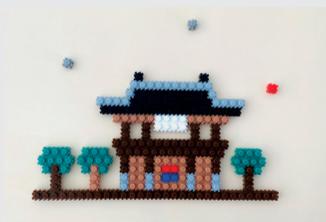
## 로컬러

지역사회(Local)를 보다 다채(Color)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로컬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로컬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알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역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 소행성99

전통과 현재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전통 디자인 브랜드입니다. 전통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위해 전통의 실루엣을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재구성한 디자인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스토리블록

블록을 바탕으로 교육과 놀이의 접점을 만드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공립박물관 및 문화재단의 교육용 콘텐츠 및 문화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해오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경험,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화영** \_\_\_\_\_ 작년, 문화재 야행의 참여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3일간 진행되는 행사였는데, 2일차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밖에 행사장에서 모두와 함께 비를 맞았어요. 행사도 취소되었구요. 그때 '야외행사'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는 물품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정리가 어렵지 않았고 다른 분들이랑 행사장 정리를 같이 했던 생각이 나요. 수문장 마켓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기억에 납니다.

**유중식** \_\_\_\_\_ 수원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평소 SNS로만 소통하던 브랜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대감, 처음 마켓에 참가하는 긴장감, 얼마나 얼마큼 준비할지 알 수 없는 혼란 등 여러 감정들을 갖고 첫 수문장의 마켓에 참여했을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수문장 마켓에 참여하는 브랜드명이 인쇄된 포스터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도 아직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브랜드가 모여서 마켓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수문장의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



수원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브랜드가 자유롭게 재밌게 이익과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로컬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정현빈** \_\_\_\_\_ 수문장에서 저희 로컬러(Locolor)가 만든 수원 로컬 콘텐츠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의 절반만한 인형을 들고 신나서 뛰어가는 어린이의 뒷모습,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원 스크래치 보드를 체험하는 어린이의 모습 등을 보면서, 우리가 만든 수원 콘텐츠를 단순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가치나 키워드가 알고 싶습니다.

**정현빈** \_\_\_\_\_ 단순한 판매 목적의 플라마켓이 아닌,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교류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시민들 혹은 수원을 찾은 방문객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수원 콘텐츠를 선보이고, 또 그에 대한 진솔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중식** \_\_\_\_\_ 브랜드 정체성(기준)을 갖고 로컬, 수원을 얼마나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내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요새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김화영** \_\_\_\_\_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클러스터, 커뮤니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매스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수문장이

3년차가 되었고 그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든 수원의 로컬씬에서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무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켓에 나가는 것이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저희 상품이 일반 소비자가 사는 품목들이 아니에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선생님, 그런 특수한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만일 이 마켓에 참여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너무 애쓰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수문장'에 대한 청사진이 있나요?

**정현빈** \_\_\_\_\_ 일본의 아기자기한 로컬 기업 상품들이 모여있는 로컬굿즈샵과 같이, 수원의 매력적인 로컬 상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해당 매장을 찾은 수원시민 및 방문객분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수원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제품 혹은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서로서로 노력하고 끌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유중식** \_\_\_\_\_ 카테고리도 다양해지고, 테마 마켓도 진행될 수 있는 수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타지역에서도 수문장이 열려서 수원을 홍보하고, 수원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게 말이죠. 수원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메이커, 브랜드가 자유롭게 재밌게 이익과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로컬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대표님에게 '수문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현빈** \_\_\_\_\_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성장하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수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성장하고, 보다 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화영** \_\_\_\_\_ 수문장은 제게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것을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좋은 필드와 계기를 수문장에서 만들어주셨어요. 문화도시 수원에서 브랜드 홍보 지원과 콘텐츠 유통 기반을 제공해주셨고 그 점에서 늘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어요.



문화도시 수원에서 브랜드 홍보 지원과 콘텐츠 유통 기반을 제공해주셨고 감사하고 있어요. 수원문화재단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어요.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수문장'은 다른 마켓과 어떤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김화영** \_\_\_\_\_ 수원에, 그리고 전국에 이미 많은 마켓들이 있고. 수문장이 가진 특색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미 많은 브랜드 풀이 모였고,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현재의 방향성 같은 걸 점검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수문장의 차별화된 점은, 문화도시 수원에서 장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스비용이 없는 점이 가장 큼니다. 또한 수원문화재단이 함께 하기 때문에 화성행궁, 11CM, 수원컨벤션센터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마켓을 열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화도시 수원의 지원 없이 수문장의 특색이 남아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단이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 재정지원이 없이도 수문장 자체가 살아남을지, 지금의 브랜드들이 다 함께할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인 매력과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빈** \_\_\_\_\_ 수문장과 다른 마켓 혹은 다른 지자체의 로컬 마켓 대비 뚜렷한 차별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수문장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나 기업들이 보다 특색이 있어지고, 그런 기업들의 수가 많아지고, 스타기업들이 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지원과 수문장에 참여하는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 및 방문객분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수원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제품 혹은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요.

**유중식** \_\_\_\_\_ 통일된 부스 현수막, 수원에서 활동하는 브랜드가 모여있는 점이 타 마켓과 차별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어 홍보가 되려면 로컬상품의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함을 위해 어디에서나 똑같이 판매되는 상품들의 비율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가 적더라도 브랜드 정체성과 로컬의 특색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고, 그 부분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문장'을 찾아올 또 다른 로컬크리에이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유중식** \_\_\_\_\_ 수원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김화영** \_\_\_\_\_ 워낙 좋은 콘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 수문장은 굉장히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 되실 거예요!

**정현빈** \_\_\_\_\_ 수문장이 현재에는 단순한 마켓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수문장의 본질은 수원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장에 참여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분들이 수원을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선보임으로써, 수원의 매력을 전달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동네가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수원 동행공간

## 내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행공간

문화도시 수원과 동행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지속가능한 인문 활동을 하는 거점 공간이다. 문화공간을 처음 열었을 때 꿈꿨던 공간의 일상이 실현되고, 수원의 문화공간이 그 자체로 존중 받아 다채로운 공간의 일상들이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드는 사업이다.

동행공간은 '15분 문화생활권'을 구축하여 일상에서 1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아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의 문화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행공간은 거대한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모여 지역의 촘촘한 문화 연결망을 만들어 마음 맞는 이웃을 만나고 서로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장소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행공간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경험해 보자. 8월부터 10월까지 공간의 특색을 담아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휴&꿈작은도서관 -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꿈 프로젝트'

만다라, 천연염색, 목공, 핑거페인팅, 콜라주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지친 나의 마음 치유하기!

문화예술과 학습시설,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두루 갖춘 휴&꿈 작은도서관은 복합 시설로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소중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그 속에서 서로 나누고 깨닫는 공간, 정해진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매트 하나로 작은 도서관 모퉁이에 누워서 맘껏 책도 보고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스케치하고, 그려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입니다. 휴&꿈작은도서관에는 자해시도자, 우울-조울증 의심자, 알콜 의존증 등 우리사회 어두운 곳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환영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맘껏 예쁜 그림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그 치유 경험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오는 생활 문화와 예술적 감성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 찬성가 TALK

“주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은 많아 보이는데 털어놓지 못하고 꼭꼭 숨기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자녀 둘을 혼자서 어떻게 키워낼지 막막했는데 동행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독하게 마음먹었으니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수선화 밤하늘에 별처럼 세상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늘 망설였던 일을 이제 실행에 옮겨 보려고 해요.”

### 씨드앤그로우 - 마음의 안부를 묻다

일상의 이야기, 솔직한 내 마음을 담아 한 권의 책을 출간 씨드앤그로우의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진행됩니다. 평소에는 프로젝트기획 및 디자인작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공예 및 디지털 드로잉 수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진로교육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활동을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즐거운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료 기법과 함께하며 나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쉽고 간단한 미술치료와 함께 마음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천천히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 찬성가 TALK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장애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마음의 안부를 물어보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평 - 내가 사랑하는 문장으로 점자카드 만들기

시각장애인들의 언어 '점자' 이해해보기. 우리 주변에서 점자를 발견하고, 동화책을 점자 책으로 만들어보아요.



우리 오(吾), 평안한 평(平) 글자를 써서 우리의 평안한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작은 독립서점입니다. 오평 안의 책과 사물들은 모두 오사장의 평가가 깃든 것이라는 의미와, 5평형의 서재를 갖고 있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삶 변경 안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들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겪는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평소에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들을 점자로 기록하기를 통해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살기에 어려움으로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다 함께 인지하고 작은 부분부터 바뀌어갔으면 합니다.

#### 찬성가 TALK

“점자로 책 속에 문장을 만들고 기록하면서 장애인이 살기에 어려움으로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 없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누리며 공생했으면 합니다.”

### 남수동마을사랑방 - 어르신(心) 뵙다!

남수동 청춘공방 오픈라디오, 어르신(心) 뵙다! 직접 쓴 대본을 연습해 공연하고, 오픈라디오까지 진행해봅니다.

남수동청춘공방은 행궁동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남수동 주민들의 사랑방입니다. 이곳은 남수마을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위한 상품제조, 판매, 교육, 체험사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소소한 수익은 공유냉장고를 운영에 쓰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청춘의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행궁동 주민과 라디오 대본을 쓰고 진행도 해보면서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쁨과 활력을 만들어 드리고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찬성가 TALK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교복도 준비해 주셔서 태어나서 처음 교복도 입어보고 너무 즐거웠어요. 라디오 대본도 써보고 같이 모여 웃으면서 연습도 해보고, 행복한 마음에 매일 와서 동행공간에 참여하고 싶어요.”

### 마을살이 정류장 - 동행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성교육을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지내기! 명절 음식도 만들어먹고, 전통 놀이도 체험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마을살이 정류장'은 사람과 마을을 잇는 '공동체 공유공간'입니다. 함께 할수록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공유공간 '마을살이 정류장'은 모임, 교육, 행사, 파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동체를 담아내고 연결합니다. 공간이 필요한 공동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 번 사용할수록 생기는 인센티브, 공간 내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제품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지역 사회 환경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많은 양육자가 고민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 공부해보고 가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청년(다문화)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살이의 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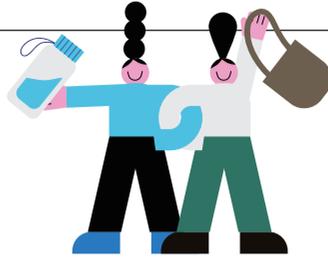


#### 찬성가 TALK

“성교육은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와 이해 수준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추천도서들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교육 교구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접할 수 있어 딸 아이를 위한 성교육 준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수원청년들이 모였다.

#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원은학교-청년리더 양성학교>



## 망가져가는 지구와 나를 위한 의미있는 환경축제 기획의 문화인재양성

수원은학교란 문화도시 수원을 이끌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주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자, 도시 전체를 일상화된 배움과 도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드는 중장기 문화 형성 프로젝트이다. 이번 청년리더 양성학교는 202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문화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키워주는 참여형 기획자 양성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내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꼭 수원 시민이 아니라도 수원시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수원시 내 거주하며 환경에 대한 주제로 축제를 기획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청년리더 양성학교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주제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제공한다.



## 문화인재를 양성하려는 문화도시 수원의 환경축제!

청년리더 양성학교는 2023년 8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해당기간 동안 주 1회 전문멘토링을 통해 축제기획 실무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기획자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주제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폭염과 산불, 태풍, 헤리케인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 점점 망가져가는 지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수원청년들이 모여 다같이 하나가 되어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수원의 청년들은 다양한 환경축제 레퍼런스 사례 발표와 축제 주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높은 참여도로 '수원은학교'를 신나는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과 전문멘토링을 통해 환경을 위한 축제 기획과 축제를 운영하게 된다. 축제 후 결과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 방향 논의와 소감을 나누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잘 지켜나가자는 좋은 의미가 담긴 이번 프로그램이 문화도시 수원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견인되길 기대한다.



### 수원은학교 청년리더 인터뷰

#### \* 이선영

늘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토론하고 축제를 기획하며, 다른 시선이나 생각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수원을 바라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 오하은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실천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수원에 10년정도 살았지만 수원에 대해 막상 잘 알지 못했는데, 수원 내 환경을 조사하는 과제를 통해서 환경문제나, 환경축제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지역 내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김수민

환경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중에 알게 되어서 참여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특강을 듣고 현재 경제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 경제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해놓고 다시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p><b>Week 1</b> 08. 02.(수)</p> <p><b>오리엔테이션</b> 참가자와 운영진이 함께 자기 소개와 취향을 나누며 교류하고 친해지는 시간</p>	<p><b>Week 5</b> 08. 30.(수)</p> <p><b>컨셉잡기 : 프로그램 전체 기획</b> 트렌드 혹은 지역에 맞는 축제 전체 기획</p>	<p><b>Week 9</b> 09. 27.(수)</p> <p><b>2차 현장답사</b> 현장 시나리오 점검을 통한 축제 세부기획 마무리 검토</p>
<p><b>Week 2</b> 08. 09.(수)</p> <p><b>특강 : 환경과 축제</b> 전문가를 통해 환경과 축제를 배워보고 이해하는 시간 - 탄소중립이란 - 축제의 정의와 트렌드</p>	<p><b>Week 6</b> 09. 06.(수)</p> <p><b>1차 현장답사</b>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를 위해 현장 사전 방문</p>	<p><b>Week 10</b> 10. 11.(수)</p> <p><b>최종 검토</b> 예상 시나리오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최종 축제 점검</p>
<p><b>Week 3</b> 08. 16.(수)</p> <p><b>전체 운영팀 구성</b> 축제 전반의 필요한 팀 구성을 통한 세분화 및 운영계획 수립</p>	<p><b>Week 7</b> 09. 13.(수)</p> <p><b>컨셉잡기 : 프로그램 세부 기획</b> 트렌드 혹은 지역에 맞는 축제 세부 기획 - 권역별로 프로그램 지정</p>	<p><b>Week 11</b> 10. 14.(수)</p> <p><b>축제 운영</b> 성공적인 축제 운영</p>
<p><b>Week 4</b> 08. 23.(수)</p> <p><b>컨셉잡기 : 자원조사</b> 축제를 만들기 전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며 우리에게 맞는 축제 생각해보기</p>	<p><b>Week 8</b> 09. 20.(수)</p> <p><b>예산 수립 / 홍보물 제작/물품 입차</b></p>	<p><b>Week 12</b> 10. 18.(수)</p> <p><b>결과 공유 및 네트워킹</b> 축제 후기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한 결과 공유 및 디벨롭</p>

#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 수원형 공공미술이 나아가 할 방향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수원에서 길을 걷다가 건물 앞을 지나며 미술작품을 보는 일은 흔한 경험이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돼 있는 조각이나 그림들을 하루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마주치지 않을까 한다. '공공미술'은 공원에 있는 조각이나 벽화처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혹은 전시하는 미술양식을 의미한다. 미술관에만 있는 작품보다는 대중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의미를 가지는 작품을 추구하는 이철희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수원형 공공미술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For New Generation)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자유의 여신을 오마주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른손으로 굴리고 있는 원 형태는 부를 의미하는 동전이며 방문객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울러 책을 받고 있는 것은 구름과 형식을 깬 개성정신을 의미하며 밝은 미래와 비전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 합니다.

## 미술이 도시를 살리고 미술이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미술과 도시는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 하임 미술관, 런던의 테이트모던미술관, 영국 게이츠 헤드의 북방의 천사, 일본의 나오시마 등 미술이 도시를 활성화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미술이 도시를 살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를 예술인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필요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구조물을 더 적극적인 미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만 있는 작품보다는 대중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주사를 여러 번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일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실에서 누워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사바늘 끝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주사바늘은 정밀한 관으로 튜브구조입니다. 이를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중첩하고, 의도한 형태로 절단하면 튜브 끝 구멍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독특한 표면이 연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조각 기법과 첨단기술을 혼합한 새로운 기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신사옥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창의적이고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작품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술이 도시를 살리고 미술이 시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 미술은 도시를 살리는 열쇠

달리는 차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적막한 고속도로 주변에 미국 서부 네바다사막에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고 론디노네의 'Seven Magic Mountains'이라는 공공미술입니다 이 작품 은 돌을 쌓은 탑처럼 보이지만 사실 돌처럼 만든 청동 브론즈이고 그 브론즈를 철근 콘크리트로 땅속에 심은 것입니다 화려한 형광색이 층층이 쌓여있는 7개의 탑은 높이만 11미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 Art Production Fund과 네바다 박물관에서 약 350만 달러(46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대규모의 공공미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대중교통도 없고 라스베이거스에서 7마일 남쪽으로 운전해서 가야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은 쏟아지는 햇볕에 대비해 선글라스와 모자를 가져가야 하고 방울뱀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1만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장점은 단 하나. 입장료도 없고 주차비도 없습니다. 네바다사막에 우고 론디노네가 처음으로 미술품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Michael Heizer와 Jean Tinguely는 1960년대에 '랜드아트'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작품은 예술적인 시도였고 관심 있는 사람만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외성입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것을 보여 주는 시도가 먹힌 것입니다. 그동안 작품은 당연히 전시장에 가서 보고 공공미술도 광장의 중심에 있는 것만 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사막,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미술, 대자연의 황량한 사막에서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전시한 미술 작품이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

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주제를 피하고 화려한 색을 넣어 더 밝고 경쾌해진 팝아트적인 시도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경쾌한 색 터치로 강렬한 느낌을 주는 장소가 되어 연인들이 방문하고 결혼식도 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없던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을 SNS에 올리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접근성의 확장으로 인해 2년 후 철수할 예정으로 설치했지만 3년을 더 연장하고 2021년 추가로 6년을 연장해서 2027까지 11년간 전시를 연장 한 것입니다. 기획한 단체도 작가도 성공한 전시입니다.

성공한 공공미술의 사례가 된 이 작품은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어졌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이러한 공공미술이 전시됩니다. 이런 전시는 수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으로 수원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수원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삭막한 환경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도심 속 차가 회전하는 로터리도 좋습니다. 낮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볼거리가 되고 밤이 되면 작품에서 영상이나 빛이 나오고 포토존이 되는 작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테두리 내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획을 하는 것부터 예술의 시작입니다.

글 \_\_\_\_ 이철희

작가. 2009 한국구상조각대전 대상 수상 (성남아트센터), 2008 한국구상조각대전 장려상 수상 (성남아트센터), 2005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1988 동아미술대전 동아미술상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1988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국립현대미술관)을 수상했다.

### 문화도시 수원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 한눈에 보는 '문화도시 수원 행사'

사람중심의 '인문 도시' 수원, 9월의 수원에는 시민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삶의 축제가 열리고, 누구나 와서 수원 로컬브랜드의 제품을 손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같이공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행공간까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문화도시의 수원의 행사를 통해 가을의 풍성한 즐거움을 즐겨보세요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지향해온 수원시. 시민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문화도시 수원에서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삶의 축제인 '인문도시 시민축제'가 펼쳐집니다. 인문도시주거는 인문도시 수원이 추구해온 사람중심의 가치 위에서 시민주체성을 토대로 만들어 갑니다. 인문도시 시민축제는 함께 하는 삶의 축제를 지향하며 시민 그룹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시민활동가, 예술가, 공부하는 시민, 동네책방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자, 기획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모여 인문도시주거를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3. 10. 11.(수) ~ 15.(일)  
사전행사 2023. 10. 11.(수) ~ 13.(금)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1관 극장 등  
본 행사 2023. 10. 13.(금) ~ 15.(일) / 111CM



**<광고 생활권역>**  
가을바람 불어오는 10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광고 북크닉(Booknic)이 개최됩니다. 광고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누워 책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고 싶은분들의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23. 10. 7.(토) 11:00 ~ 20:00  
장소 광고호수공원 잔디광장 일원

**<권선 생활권역>**  
도심 속 수변공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신동수변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이를 나만의 그림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주말 0교시 탐구생활'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2023. 9. 18.(월) ~ 10. 13.(금)  
일시 2023. 10. 14.(토) ~ 11. 11.(토)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장소 신동수변공원 및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수문장은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의 약칭으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문화창작자의 작품 판로 확장 및 활동기반 형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직거래 장터입니다. 디자인 소품, 독립 출판물, 패션 잡화, 식품, 제로웨이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활동과 소비의 연결을 도모합니다. 지역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문화 콘텐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문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문장in 국제아동도서 & 콘텐츠페스타>**  
국내 최초 다양한 영역의 키즈 콘텐츠를 아우르는 복합 전시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로컬브랜드, 독립출판, 창작자 등 30여 곳의 브랜드로 구성된 수문장이 이번



동행공간은 문화도시 수원과 동행하는 공간으로 '15분 문화생활권'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공간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번 호엔 10월에 참여 가능한 일부 프로그램을 소개 합니다.  
\* 15분 문화생활권이란 일상에서 1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아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길 위에서 '수다와글' 낭독회>**  
일시 2023. 10. 6.(금) 10:30 ~ 14:00  
장소 가치가게 (권선구 세권로 140, 지하 1층)  
내용 호퍼의 전시를 보고, 광고호수공원을 맨발로 걸으며, 백제 유적을 찾아가 나는 수다를 글로 씁니다. 글을 낭독하며 제철 요리도 함께 나눠 먹어요!  
\*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면 공간에 반드시 문의해주세요.  
문의 0507-1369-8821

전시에 참여하여 체험, 판매,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간 2023. 10. 5.(목) ~ 10. 9.(월) 10:00 ~ 17:00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수문장 아트페어>**  
지역에서 활동중인 청년 예술가를 소개하고, 예술 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예술품 유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아트페어 형태의 수문장을 개최합니다. 수문장 아트페어는 20여명의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며, 롯데몰 수원 1층 로비에서 6일간 진행됩니다.

기간 2023. 10. 24.(화) ~ 10. 29.(일) 10:30 ~ 22:00  
장소 롯데몰 수원 1층 로비

**<수문장 X 노보텔 수원 팝업스토어>**  
수문장은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과 협업하여 호텔 1층 로비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수문장 브랜드 한 곳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합니다. 매주 주말, 수원의 특색있는 수문장 브랜드를 만나보세요.

기간 2023. 9월 ~ 12월 매주 주말 (토, 일)  
장소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 로비

**<톡톡 글로벌 문화교류회>**  
일시 2023. 10. 14.(토) 13:00 ~ 16:00  
장소 톡톡외국어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18호)  
내용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인을 초청해 본인 나라의 대표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합니다. 카메룬 강연 및 문화 체험을 합니다.  
\* 일정 및 강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면 공간에 반드시 문의해주세요.  
문의 0507-1346-4921

## 111CM <쁘띠-마르쉐>



111CM에서 '쁘띠-마르쉐(작은 미술시장)'를 9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5일간), 참여 작가와 판매 작품을 변경하며 운영합니다. 뿌띠-마르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작품과 아트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의 작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진·중견 작가가 회차별 릴레이로 진행하는 팝-업(POP-UP) 전시입니다. 회화, 공예, 종이모형, 아트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 소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23. 9. 6.(수) ~ 11. 26.(일)      장소 : 복합문화공간 111CM 전시장

참여 작가 및 운영 일정 ※ 추석연휴, 인문도시주간 미운영

- 참여작가(9. 5.(화) 이후)
  - 1회차(09. 06. ~ 09. 10.) : 신영진
  - 2회차(09. 13. ~ 09. 17.) : 장형순
  - 3회차(10. 04. ~ 10. 08.) : 박영아
  - 4회차(10. 25. ~ 10. 29.) : 윤지영
  - 5회차(11. 01. ~ 11. 05.) : 김효정
  - 6회차(11. 08. ~ 11. 12.) : 조윤주
  - 7회차(11. 15. ~ 11. 19.) : 이단비
  - 8회차(11. 22. ~ 11. 26.) : 이해균

## 수원공동체라디오 'Sone FM(손:에프엠)'



수원공동체라디오, SoneFM은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수원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으로 지역 소식과 정보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SoneFM은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고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방송하는 Sone FM(손:에프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파수 FM 96.3MHz / 송출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가을에 찾아오는 쉽게 빠져들다. 힐링(healing) 폴링(falling)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4개 가을 축제를 통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4개 축제로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있습니다.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축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공연/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화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지속가능한 '놀이'와 '쉼'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 의궤가 살아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을 주제로 수원화성의 축성에 투입된 장인들의 송고한 가치, 조선시대 백성들의 희로애락,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을 공연과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냈습니다.

기간 : 2023. 9. 23.(토) ~ 10. 14.(토)[22일간]

장소 : 화서문, 장안공원 등 수원화성 일원

개막공연 : 9. 23.(토) 19:00, 화성문 앞 특설무대

개막공연 '기억의 축성'



### <2023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3 "수원화성 행행(行幸)" 개혁 군주 정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원화성 행행(行幸)」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 초대형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집니다.

기간 : 2023. 10. 6.(금) ~ 11. 4.(토)[30일간] 19:00 ~ 22:00

장소 : 창룡문, 국궁 등 수원화성 일원, 수원시미디어센터

###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 수원동락>



수원화성문화제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꿈을 바탕으로 축성된 수원화성에서 매년 펼쳐지는 역사 깊은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6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풍성해진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되며 '수원동락(수원시민이 만들고, 모두가 즐기는 축제)'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축제로 개최됩니다.

기간 : 2023. 10. 7.(토) ~ 10. 9.(월)[3일간] ※ 경축타종 : 2023. 10. 6.(금) 18:30

장소 : 행궁광장, 장안공원 등 수원화성 일원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을묘년(1795)에 진행한 8일간의 대규모 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입니다. 원형을 모 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을 거쳐 화성 용릉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행렬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수원행행은 시민주도형 축제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현-체험행렬 그리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시민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기간 : 2023. 10. 8.(일) ~ 10. 9.(월)[2일간] \*수원행행 : 2023. 10. 9.(월)

장소 : 서울 창덕궁 ~ 수원화성 ~ 화성 용릉

(수원행행) 노송지대 ~ 종합운동장 ~ 장안문 ~ 화성행궁



문화도시 수원 인스타그램

QR 스캔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GO!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은 수원문화재단에서 모금하고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 '기부'로 문화예술관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낼 곳 monthlly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OO구 OO동), 휴대폰 번호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